

영신사 김기영 이사 매주 1시간씩 품질평가 통해 마인드 제고 디지털인쇄, 아직은 속도 종이사이즈 미흡

업체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영신사는 세가지 경영이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애와 주인의식, 창조적 리더, 철저한 장인정신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경영이념을 토대로 영신사는 원스톱서비스를 추구하고 있으며, 모든 공정의 생산설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신기종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신 설비와 컴퓨터에 의한 정확한 색 배합은 최고 품질의 인쇄를 실현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과 다양한 인쇄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로는 (주)웅진출판, 문학동네, 랜덤하우스코리아, 위즈덤하우스, 한국물가정보, 파고다, 안그래픽스, 열린책들, 길벗, 살림, 사회평론 등 200여 곳의 거래처가 있습니다.

출판사 거래처가 많은 만큼 단행본이 90%정도(60~120g의 모조인쇄)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간지가 10%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출판사 책들의 경우 1도 인쇄가 많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대부분 2도 4도의 본문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기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로랜드 5색 및 4색 기계 4대, 로랜드 2색기 1대, 고모리 양면 4색(2/2)기 2대, 고모리 양면2색(1/1)기 1대, 미쓰비시 반절4 색인쇄기 1대 등 총 9대의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신사는 매엽인쇄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각 도수별 인쇄기를 보유하고 있어 설비는 완벽한 편입니다.

오프셋 인쇄기를 도입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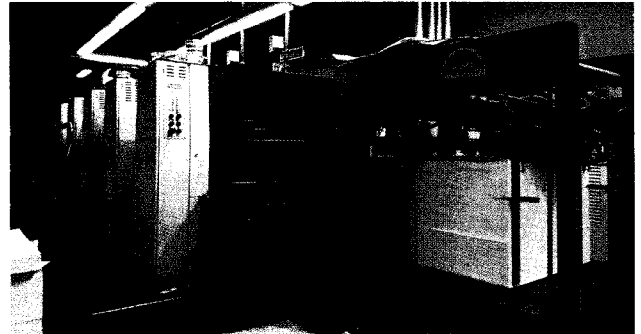
영신사는 출판사의 단행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인쇄물의 적성에 맞는 기종을 보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빠른 속도와 저렴한 유지가격이 오프셋인쇄기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인쇄물 품질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인쇄물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작업자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작업성향에 맞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작업자의 마인드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격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업자가 대중대중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다면 좋은 품질의 인쇄물은 얻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경우 2008년 기장들을 대상으로 한 경영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이 컨설팅을 통해 기계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 품질이 달라진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주 1시간씩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기장들은 매주 화요일 아침에, 부기장들은 매주 토요일 아침에 1시간씩 회의를 갖습니다. 매주 평가를 통해 인쇄기계의 상태와 인쇄품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물론 매주 회의를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장과 부기장들의 반발도 있었구요. 하지만 이 회의를 통해 서로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 인쇄사고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주 열리는 회의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객관계강화를 위해 어떠한 경영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회사의 경영전략은 '품질, 납기, 여분, 서비스'입니다. 품질과 납기는 대부분의 인쇄사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넉넉한 여분과 함께 기장들의 고객서비스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에도 영업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영업은 기장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출판사를 대상으로 한 작업이 많은 만큼 단행본의 경우 감리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 출판사의 감리자의 경우 디자이너 및 편집자가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거나 유학 후 바로 출판사에 취업해 감리를 보러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들의 경우 인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장님들이 힘들어하시지요. 몇 번하면 바뀌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 인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것으로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의 경우 감리자에 대한 친절을 매 회의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결국 "아 그때 영신사의 기장님들이 참 친절하고 좋았구나"라는 것을 나중에라도 알게 되시지요. 그럼 그분들이 다른 출판사로 자리를 옮기더라도 우리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인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프셋인쇄의 경우 단가는 낮아지고 재료비는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판단지 2단지에 대지를 구입해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CTP 등 자동화 설비는 추가로 구매할 예정입니다.

디지털인쇄기 도입여부에 대해 2년전 깊이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디지털인쇄기의 속도나 종이사이즈의 한계로 인해 도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이 부분이 개선된다면 그때에는 디지털인쇄기 도입에 대해 논의해보겠습니다.

영신사 소개

- 1983년 영신사 설립
- 2002년 만로랜드 대국전 4색기, 5색기 도입
- 2005년 만로랜드 대국전 4색기 도입
- 2005년 파주출판문화단지지로 이전
- 2006년 고모리 2색양면기, 만로랜드 4색기 도입
- 2007년 고모리 2색양면기 도입
- 2008년 경영컨설팅 진행(기장 대상)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파주출판단지 498-4
전화_ (031) 955-3541